



타로의 신비로움에 사는 사람들- 타로 스토리

점괘로 인생 카운슬링

2002년 한국의 겨울을 녹여버린 드라마 '겨울연가'. 일본 열도에 '온사마' 열풍을 일으킨 이 드라마에는 카드를 뽑아 운명을 점치는 타로카드가 등장해 '타로 바람'의 진원지가 되기도 했다.

당시 생소했던 타로는 지금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인터넷 운세 콘텐트에 빠지지 않는 데다, 시내와 대학가에 타로 점을 전문으로 보는 이들도 볼 수 있다. 화투장을 뒤집으며 운세를 점쳐보던 어른들처럼 요즘 젊은이들은 타로카드를 통해 운을 점치고, 78장의 카드에 담긴 의미와 이미지를 공부한다.

타로의 신비스러운 세계속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 매달 정기 모임을 통해 타로에 대해 연구하며 그 매력에 빠져있는 '타로 스토리'(http://cafe.daum.net/TarotStory) 회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카드 종류가 3천여종이 넘는 데다 사람들의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타로세상은 무궁무진하다. 그만큼 타로카드와 친숙해지는 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운영자 정은미(여·29)씨는 타로의 신비로운 이미지와 상반되는 컴퓨터를 다룬다. 초등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는 정 씨는 2002년도 행사장에서 타로카드를 접한 뒤 그 매력에 빠졌다.

"미술치료 등 그림 읽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광주에만 20대 중·후반 100여명 활동
연예·취업 등 고민 상담하며 인생 조언
"우리들은 예언가 아닌 조언가"

다양한 색채의 화려한 카드에 매료돼 취미로 카드를 모으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상담자 역할을 하는 정 씨는 "타로카드를 통해 사람들의 고민도 듣고 상담도 해주면서 화살도 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맞았을 때 희열도 느끼는 등 타로를 통해 배우는 게 많다"면서도 "운은 개개인이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타로카드의 결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송병희(26)씨도 카드 그림에 끌려 입문한 경우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 타로카드를 알게 된 송 씨는 독학으로 공부를 하다 8개월 전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다.

"혼자 공부 할 때는 그림의 단면만 보고 단편적으로 생각했는데, 동호회 사람들을 통해 카드에 담긴 의미를 새로 이해하고 더 넓게 해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 씨는 또 "타로카드를 매개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개인기로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다"며 "타로카드가 사회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말한다.

운영자 강기태(25)씨는 호기심에 본 타로카드에 마음을 들긴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험을 했다.

"2001년 타로 카드를 접했는데, 진로 때문에 고민하던 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와 마음을 읽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독학도 하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취미 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감사의 인사를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했던 강 씨는 지금은 대학로 축제나 학교 행사 등에 초대받는 베테랑이지만 타로 카드가 '예언가'는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타로 카드에 정해진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본인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타로 카드는 그 미래의 시작점이 되는 현재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조언가'이지 절대적인 '예언가'는 아닙니다."

'타로 스토리' 회원들에게 타로카드는 인생의 조언자로 복잡한 고민이 생겼을 때 찬찬히 현재 상황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타로스토리의 회장 강기태(가운데)씨와 회원들은 매달 정기 모임을 통해 신비스럽고 무궁무진한 타로 세상을 경험한다.

타로스토리 회장 강기태씨가 말하는 타로 카드

운영자 강기태씨는 타로카드가 일반적인 게임이나 재미로 보는 단순한 점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타로카드를 통해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정해진 틀에 맞추어진 정답은 없다. 주위 환경과 상대의 성격, 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인지한 다음에 적절하게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타로카드는 결정의 보조기구가 되는 상징성의 집합체로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의미를 끄집어 내기 위해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 개방성을 갖는다=개방성은 수용력을 의미한다. 거부나 반대없이 순수히 카드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으로 개방성을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

▲ 마음의 고요하게 한다=마음이 불안할 때에는 내부적인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다. 카드

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고요하고 침착하게 통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질문과 고민에 집중한다=집중은 타로의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구체적이며 강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통찰력 있는 해석을 위해 집중력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 주의를 기울인다=어떤 사물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 사물이 특별한 의미로 인식되고, 깨어있음을 느낄 수 있다. 실증을 느끼거나 카드가 지켜워지면 카드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 정중함을 지녀라=타로카드를 가지고 있는 도구처럼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중함으로 타로카드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망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겐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에게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어 냈습니다. 국제약품은 오늘도 생명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의 보급
- 콜레스테롤, 인산·구아니, 방충·방파치(세라피치) 노년기
- 동맥 경화증 예방, 미연령
- 당뇨, 고지혈증 예방, 체중 조절, 노인성 질환, 주근깨 예방, 피부노화 예방, 비염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암수지자 다중 증상의 예방·치료·유지·유지, 노년성
이연의 보급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yujinpharm.com